

# 이키노시마해안 표착물 클린업작전 「블런투리즘(자원봉사관광)in 이키노」

1. 자치단체명 : 나가사키현

2. 발표자명 : 카미야마 카호 (KAMIYAMA Kaho) (이키노시립가츠모토중학교 2학년)  
히모모토 타쿠마 (HIMOMOTO Takuma) (나가사키현립이키노상업고교 2학년)  
카미야마 유 (KAMIYAMA Yu) (나가사키현립 이키노고등학교 2학년)  
히모모토 유카 (HIMOMOTO Yuuka) (이키노시립 가츠모토중학교 1학년)

3. 활동명 : 이키노시마해안 표착물클린업작전 「블런투리즘 in 이키노」  
(자원봉사단체 「이키노시마활성화집단 팀 사키모리」 개최)

4. 활동기간 : 연간 2회 실시, 2010년 4월과 2002년 4월 2회참가

5. 활동장소 : 섬내 전해안

6. 활동참가인원 : 제 1회 60명, 제 2회 120명

## 7. 활동을 시작한 경위

가족중에 자원봉사 가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섬의 해안표착물 현장을 본 관광객의 놀란 목소리를 듣고나서 참가하기로 했다.

## 8. 발표요지

우리가 살고있는 나가사키현의 이키노라는 섬의 해안표착물에 대한 활동 방안에 대해서 발표

### (1) 이키노 개요

섬의 면적은 133평방킬로미터 둘레는 191킬로,인구는 29,500명의 작은섬입니다. 주요산업은 어업,농업,관광입니다.

### (2) 이키노 해안표착물 모습

하얀 것은  
발포스틸렌입니다.  
부서져서 눈처럼 됩니다.  
쓰레기로 해안이 뒤덮혀  
있습니다. 모두 우리 인간이  
버린것들 입니다.



### (3) 이키노의 섬 해안표착물 클린업작전에 참가

①2010년 4월 3일에 「제 1회 블런투리즘 in 이키노」에 참가했습니다.

『블런투리즘』이란 자원봉사와 관광을 합성한 단어입니다.

쓰레기줍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다음날에 관광을 즐기는 체험형관광을 말합니다. 이때의 참가자는 60명 수거쓰레기의 양은 트럭 6대분이었습니다.



②금년 4월 28일에 『제2회 불런투리즘 in 이키노』에 참가했습니다. 1회때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해 대량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.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.그러나 많은 쓰레기의 양에 놀라 멍하게 서 있습니다. 대형냉장고,발포스틸렌,어구 등 수많은 쓰레기가 표착되어 있습니다.회수한 쓰레기를 분별해 소각시설로 운반했습니다.



#### (4) 향후의 활동

이상태로는 쓰레기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. 아직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됩니다.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소중한,아름다운 자연을 후세에 남기고,바다의 환경보전과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가고자 합니다.

줍는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. 이러한 슬로건을 모토로 쓰레기가 없는 지구를 목표로 같이 노력합시다.

앞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, 손자와 그 손자들에게도 이러한 깨끗한 이키노시마의 바다를 남겨주고 싶습니다.

맨발로 걸을 수 있는 해변을 목표로.

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참가해 나가겠습니다.